우암학원 창학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9683호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음력 1월 16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순식간에 전복”… 신안 어선 인명 수색·구조 총력

12명 중 3명 구조… 9명 실종
기관실 파공이 사고원인 추정
“제발 무사히” 애타는 가족들
尹, 해군 특수부대 투입 지시

5일 신안 임자도 주변 해상에 전복돼 있는 청보호 위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다. 선원 중 3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선원들은 실종상태다.

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개인 소유 어선인 24톤 청보호가 4일 오후 11시 19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됐다. 실종 선박은 지난 설 직후 경남 포항을 떠나 진도를 거쳐 최근 신안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한국인 선원 9명과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12명을 싣고 진도 서망항을 출항한 이 배는 사고 당일 소라를 잡고 있었으며 약 700kg을 어획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 선원 2명은 기관실에, 10명은 갑판에 있었으며 침수사실을 신고했으나 7분만에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중 3명은 목포 광역 해상관제센터(VTS)의 구조 요청을 받고 인근에서 접근한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사고는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시작됐다. 선원 중 일부가 기관실에 물이 차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후 구명뗏목이 펼쳐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전복됐다고 전했다.

해경 1차 조사결과 청보호에는 외부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조자들은 “평소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기관실 엔진에 파공이 생겨 물이 차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톤급 중형어선인 청보호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748마력이다. 길이 21.75m, 너비 5.18m, 깊이 1.44m이다. 통발을 이용해 전국 근해에서 꽃게, 소라 등을 잡았던 이 배는 지난해 3월 건조, 다음달인 4월 인천시 중구청에 어선으로 등록됐다.

현행법상 어선은 2년 6개월마다 중간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청보호는 건조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검사 대상은 아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실종된 기관장 A(64)씨의 아내 B(64)씨는 “지난 1일 남편이 ‘진도에 입항했다’고 연락한 것이 마지막”이라며 “위험한 기상 상황이 계속됐던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럽다”고 빠른 구조를 호소했다.

그는 “남편은 줄곧 ‘바닷일이 힘에 부쳐 내년에는 은퇴하려 한다. 은퇴하고 나면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말해왔다”며 “한없이 상냥했던 남편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목놓아 토로했다.

당국은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목포해경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해 어려움이 있으며, 선내 진입이 어구와 이중구조 등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망을 절단해서 오늘 중으로 선내에 진입하고, 전복된 선박의 인양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색구조에 민간합동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안군 해상 어선 전복사고 수색·구조 현장에 관계부처 장·차관 급파를 지시했다. 실종자 수색·구조에 해군 특수부대 추가 투입도 지시했다.

현재 수색은 해경함정 26척과 해군 함정 3척, 관공선 4척 등 35척의 선박이 진행중이다. 해경과 해군의 헬기와 항공기 8대도 동원됐다. 전남도는 신안과 영광, 무안 등에서 민간 어선 250여척을 수색작업에 참여시켰다. ▶관련기사 3면

박상지 기자·신안=홍일갑 기자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민주 “尹정권 현주소”

“후진적 권위주의로 후퇴”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이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다. 2021년에는 16위였으나 이젠 24위로 일본보다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20년부터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으며 반석 위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이냐. 이런 참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맹공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 외교, 민주주의 무엇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다. 준비 안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치와 국민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 복원과 경제살리기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사람들 (497/1000)

김 종 필

연극인

▶관련기사 16면